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구성원 소개



이행은 전문위원

담당분야 >> 영재를 위한
성장지원 체계 지원
전공분야 >> 교육학 박사
(세부전공 : 교육심리, 영재창의성)
E-mail : helee71@kipa.org
TEL : 02-3459-2745



이윤조 전문위원

담당분야 >> 차세대영재기업인
핵심역량 진단 · 관리
전공분야 >> 교육학 박사
(세부전공 : 직업교육, 환경교육)
E-mail : yo3283@kipa.org
TEL : 02-3459-2744



유효현 전문위원

담당분야 >> 진로상담
전공분야 >> 교육학 박사
(세부전공 : 교육심리학)
E-mail : hhyoo@kipa.org
TEL : 02-3459-2746



최민경 전문위원

담당분야 >> 사회 · 정서적 상담
및 지원
전공분야 >> 심리학 박사
(세부전공 : 인지 및 발달심리학)
E-mail : i321@kipa.org
TEL : 02-3459-2743



이 윤 조
전문위원

주요 경력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현재) / 서울대 산업핵심역
량연구팀 선임연구원 / 서울농생대 교육원수원, 경인
교대 강사 / CJ 인재원 HRD 담당 / 공군 인사참모부
시험관리장교

주요 활동

직업기초능력 인증제 도입방안 / BK21 산업인력개발
전문가양성사업 / 새터민의 기초직업능력 진단 / 발
명교실 표준모델 개발 등 과제참여 / 「환경보전」 교
과서 집필위원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CEO로 성장하는 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자녀가 그 과정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님의 영향이 매우 큼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도 우리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셔야 합니다. 저는 학생이 CEO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진단 ·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같이 도움을 주어 자녀가 CEO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다면, 자기인생의 CEO로서 미래를 보다 의미있고, 보람차게 설계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19층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TEL (02)3459-2928 FAX (02)3459-2758

이IP세 [IP世]

; IP세상, 세상을 세움

창간호 2011년 1월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혁명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가 대한민국 청소년과 학부모 지원의
창의적 모델을 제시합니다.

한국의 청소년은 우수합니다. 국제 수학 ·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휩섭니다. 세계랭킹 20위권에 드는 유명대학에서 활약하는 가장 많은 유학생 또한 한국 청소년입니다. 한국에서 온 수학천재들은 전세계 학생들을 늘 긴장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공교육이 한국의 교육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은 불쌍합니다. 이들이 확보한 국제적 우수성은 대학 입학을 시점으로 추락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대학에 입학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외국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해답을 찾는 훈련만을 받아온 우리 청소년들이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담한 결과 앞에 이들이 받았던 교육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강

남 · 대치동 학생들의 일상이 서서히 공개되면서 우리 학생들을 가장 불쌍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엄마들’을 지목합니다.

부모와 학부모를 비교하는 한 공익광고는 한국 학부모들에게 ‘좀 적당히 하라’고 권합니다. 공익광고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을 둘러싼 비판의 중심에는 늘 학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멀리 보지 못하게 하고, 큰 꿈을 못 꾸게 하고,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 엄마들의 불안이 우리의 청소년들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단정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식이 잘 살아내기를, 사회에서 한 몫을 해내며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 심정이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를 리가 없습니다. 필자의 어

머니도 그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옆집 영희가 기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는 걸었으면 좋겠고, 옆집 철수가 한글을 읽으면, 우리 아이는 알파벳을 읽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부모 심정인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지나치다 뉘달만 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에 대해 뉘달 받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비극이 학생 대신 학부모를 다그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수 이적의 어머니로 유명한 여성학자 박혜란 씨의 자녀교육법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책제목이 『믿는만큼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저자는 부모란 한없이 믿어주는 사람이고, 기다려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좋은 부모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부모 되기는 내 자녀를 바로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고, 믿어주며, 내 자녀를 바로 아는 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부모에게도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핀란드 바람이 거세게 불니다. 몇 해 전부터 출판계는 국가경쟁력 1위를 달리는 핀란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식으로 부모혁명을 하고, 공부 혁명을 하며, 교실 혁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통째로 부러워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결국 새로운 교육 모델을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요구가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을 탄생시켰습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KAIST, POSTECH과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한국 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정답이 아닌 질문을 찾는 대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는 이러한 시도에 발맞추어 과연 부모와 학생에게 어떠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학생은 정답만을 찾는 일에 지치지 않아도 되고, 학생이 정답보다 질문을 찾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에 부모가 조바심 내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적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어떠한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핀란드 교육의 구호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핀란드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좋은 새로운 교육이 실현되어 한국의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가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앞새창간에 부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뉴스레터를 통해 자녀의 꿈을 키우는 부모가 되길 희망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최종협 부회장



우리회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10년 9월 9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카이스트와 포스텍 두 대학의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균형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가 차세대영재기업인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과 관계자에게 배포되는 뉴스레터 창간호 발간을 기념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신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디딤돌의 역할을 기꺼이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기준에서 영재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조언해주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텍스터 예거는 그의 저서 '성공을 부르는 30가지 습관'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꿈꾸기를 멈추고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꿈꾸기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꿈에 투자하십시오.”

자녀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들이 꿈꿀 수 있도록,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일입니다. 차세대영재기업인은 가슴 속에 원대한 비전을 품고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에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는 학생이라 생각됩니다. 21세기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장을 찾아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남들과 다른 새로운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과 위험이 수반될 수 있으며, 경험과 전문지식 또는 내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영재기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상담 등을 통해 지원하고, 학부모님께서는 뉴스레터를 통해 고품질 최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재자녀를 둔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릴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학부모로서 가져야 할 권리이며 태도입니다. 센터에서 매월 발간되는 뉴스레터는 영재, 심리, 교육 등 영역별 전문가들이 자녀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의 진로, 기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발달시키는 방법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센터에서 발간되는 뉴스레터가 모쪼록 학부모님의 자녀교육에 있어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재 자녀의 진로를 위해 무엇부터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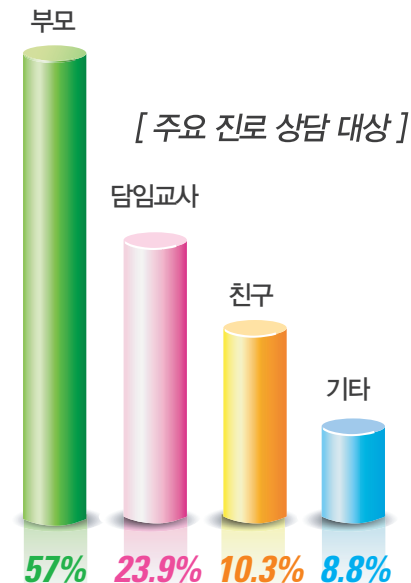
유효현 전문위원
(hhyoo@kipa.org)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나는 지금 꿈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위의 진로에 대한 질문들은 일반 자녀와 영재 자녀들 모두의 공통 고민들입니다. 이러한 ‘진로와 관련된 고민들을 주로 누구와 상담 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부모님(57%)**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2010년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요구조사). 또 영재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님의 태도**임이 여러 연구결과(Nelson & Smith, 2001, Olszewski-Kubilius & Yasumoto, 1995)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진로 탐색, 준비 그리고 선택에 있어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영재 자녀들과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진로 선택 기준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의 진로 선택 기준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의사나 법조인 등과 같은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시대·사회적 배경의 변화와 영재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등 때문에 일반 자녀를 둔 부모님과 다른 생각으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즉, 영재자녀를 둔 부모님은 부모입장의 진로선택 기준이 아닌 영재자녀들의 진로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맞는 진로 지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재의 진로선택 기준 중 하나는 “어떤 직업에 종사했을 때 가장 흥미로운가? 즐길 수 있는가?”, “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나라,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과 같이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로 선택 판단 기준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하여 부모님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의 반대는 소통입니다. 영재 자녀와의 진로에 대한 진정한 소통을 위해 부모님들은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영재 자녀가 가진 특성**을 알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영재 자녀들의 인지적인 측면만 보지 않고, 성격, 가치, 학습스타일, 대인관계 등 사회-정서적 특성까지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영재 자녀의 특성을 아는 만큼 영재 자녀의 생각과 행동 등을 이해하고 받아드릴 수 있어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단계별로 진로 지도를 하는 방법, 자녀의 흥미와 능력, 가치관 등을 파악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 평생 동안 진로를 인식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진로 설계 방법 등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진로에 대한 열린 태도와 사고**가 필요합니다. 영재 자녀들이 진로선택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자녀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은 영재자녀의 진로 지도하실 때 영재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 사회, 국가,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을지 더 큰 맥락까지 고려하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자녀와의 소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부모님의 생각과 태도가 바로 우리 귀한 영재 자녀 진로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 Nelson, M. A., & Smith, S.W.(2001). External Factors affecting Gifted Girls' Academic and Career Achievements. *Intervention in School & Clinic*, 37(1), 19-22.
- Olszewski-Kubilius, P., & Yasumoto, J.(1995). Factors affecting the academic choices of academically talented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8(3), 298-318.

영재 상담의 필요성과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개별 상담



최민경 전문위원
(i321@kipa.org)

학부모님께서서는 내 아이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아이가 어떤 분야에서 우수한지, 어떤 고민으로 힘들어하는지, 어떤 장래희망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녀의 내면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내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지금 당장 종이와 연필을 꺼내어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어보십시오. 의외로 답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의 내적인 경험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특히 영재아이들에게는 필수적인 지원이라는 점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카지마이어스 다브루우스키(Kazimierz Dabrowski) 박사는 영재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지적·정서적·감각적 과흥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재의 내적인 경험은 일반인에 비해 지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훨씬 강렬하고, 예민하며, 복잡하고,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영재에게는 자연현상이나 예술작품에서 오는 감동이 몇 배나 생생할 수 있고, 철학적, 학문적 세계가 몇 배나 심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재가 일반인에 비해 훨씬 강렬하게 경험하는 대상은 부정적인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생각과 부정적 기분 또는 스트레스가 영재아의 마음 속에 쌓이지만, 이를 털어놓고 이야기하거나 이해받을 수 없을 때 영재가 느끼게 되는 고립감은 장기적으로 영재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재의 내적인 경험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 센터에서는 교육생들에 대한 기초상담 내용을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자신의 특성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성격의 장단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장점은 활용하고, 단점은 조절할 수 있도록 '기질 및 성격검사(JTCI)'를 실시합니다. **둘째**, 청소년 진로발달 검사 결과를 통해 진로 발달 수준을 점검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지수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 대처 상의 취약점, 보다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셀리그만 장점 검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장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다 성숙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상담합니다. 이밖에도 영재성, 가족, 또래, 학교생활,



개인적인 고민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통해 전반적인 생활 상담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진행된 이 상담을 통해 180여명에 이르는 교육생과 전문위원이 일대일로 만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상담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영재 상담 분야의 대가인 린다 실버만(Linda Silverman)은 영재상담을 영재의 자아-실현을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재가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인보다 더욱 심오할 수밖에 없는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분출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차세대영재기업인 개별 상담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장기적 노력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학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기분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지침을 한 번 수행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1. 아이의 행동과 언행을 통해 기분을 짐작해보고, 그 느낌과 기분을 단어로 표현해 봅니다. 감정상태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labeling)는 아이의 기분을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진정한 배려는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했던가요, 서로에게 보다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어떤 사건을 표현할 때, 내 아이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예민하게 살펴보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를 좋아하는지,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자녀가 생각하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자녀를 성공적으로 교육한 세계 부모들의 자녀교육 비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으로 이번 호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Bill Gates)를 성공적으로 교육시킨 그의 부모의 교육방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빌 게이츠는 열세 살 때부터 게임을 하기 위해 직접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한 영재로서, 세계 최고의 부자에 오르고 현재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활발한 기부활동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빌 게이츠가 있기까지는 그의 부모의 영향이 컸으며 수많은 인터뷰에서 역할모델로 자신의 부모님을 꼽았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의 아버지 빌 게이츠 시니어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남다른 점이 있었냐는 질문에 "빌은 영특하고 호기심이 매우 많았으며, 이해할 수 없는 게 생기면 답을 알아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게이츠가 게이츠에게'에서 다음과 같은 자녀교육 원칙을 공개했습니다.



- 어릴 적부터 부지런함과 검소함이 몸에 배게 하라.
즉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이다.
- 부모가 자녀의 역할모델이 되라.
- 가족 사이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경험을 많이 가져라. 저녁식사는 꼭 함께 하고 대화시간을 많이 가져라.
- 아이의 왕성한 호기심을 북돋워줘라. 책을 많이 읽도록 하자.
- 어떤 경우라도 아이를 비난하거나 모욕감을 주지 마라. 아이 스스로 바라는 꿈이 있다면 최대한 존중해줘라.
-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자기 것을 나누는 습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습관을 길러줘라.
공동체 윤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으로 키워라.

또한 빌 게이츠의 어머니 메리 게이츠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로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설거지를 재미있게 하려고 카드게임을 하거나 다른 가족들과 함께 할 때도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 자녀들이 다른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빌 게이츠의 부모는 자녀의 역할모델이 되어 사회경험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누는 삶에 대한 본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 자녀가 자연스럽게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부모라면 빌 게이츠의 부모가 그러했듯이 자녀가 귀한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바른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본 칼럼 '세계의 성공한 자녀교육'이 차세대영재기업인으로 성장할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 자녀교육의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몇 년 전 어머니들 사이에 깊은 이성을 남긴 '내 아이는 달라'라는 모 분유회사 광고 문구가 문득 떠오릅니다. 자녀를 특별하고 귀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성공적인 광고였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다르다면, 누구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다른 또래 아이들, 부모님 자신,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간상과 다르다는 의미일까요? 인재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자녀에 대한 부모님들의 기대로 인해 영재성 및 영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재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진정한 영재성이란 무엇이고, 이것이 자랑스럽고 특별한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등 영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의 영재성에 대해 부모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미국영재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는 영재성을 "한 사람이 특정 역에서 높은 수준의 창의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잠재적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재를 일반지능, 특정 학문에 대한 재능, 창의적 또는 생산적 사고, 리더십, 예술 및 신체 운동영역 중 1개 이상에서 특수한 성취를 보이거나 높은 능력 또는 잠재성을 보여 정규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동시에 이로 인해 파생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강 점	약 점
말이 많고 언어수준이 높음	수다스러움, 나이에 비해 수준이 높아 남들이 이해하기 힘들
긴 주의집중 시간	고집 세고, 남들에 의해 방해받기 싫어함, 주어진 의무를 싫어함
높은 정보 이해력과 기억력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 거만함, 기초적 반복 학습에 대한 저항
창의성	몽상적, 산만해 보임, 주어진 기준에 대한 저항
독립성, 개별학습 선호	협동성 및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 부족, 기존체제에 대한 저항성, 자신에 대한 지나친 의존
논리적, 비판적 사고	타인에 대한 지나친 비판, 부적응, 완벽주의
복잡성에 대한 선호	간단한 해결책의 지향, 규칙을 복잡하게 만들, 우월감
다양성	비구조적, 산만해 보임, 시간관념이 부족
민감성, 이타심	타인의 비판에 대해 극도의 민감성,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자신을 숨기려는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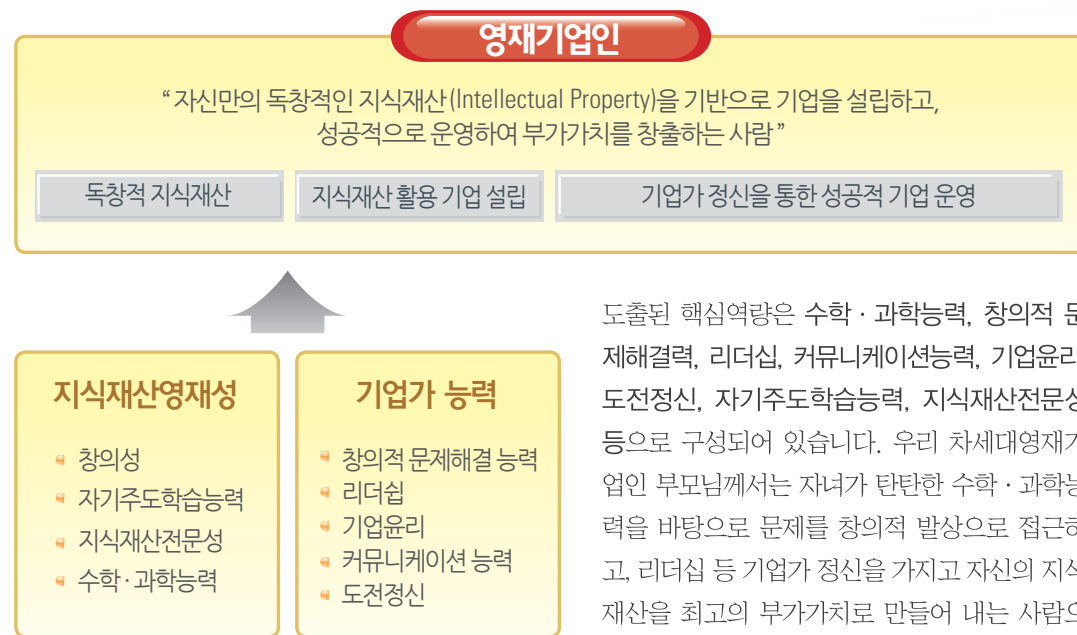
영재성은 "축복이자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 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즉, 영재들은 어린 시절 특별한 노력 없이도 쉽게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경향으로 인해 언제나 당연히 학급에서도 높은 성취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며, 타고난 능력으로 인해 특별한 지원 없이도 무엇이든 잘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재는 좋은 점만을 지닌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영재 학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자녀들의 특별한 특성 및 능력과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해 무엇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영재기업인의 핵심 역량이란?

이윤조 전문위원
(yo3283@kipa.org)

차세대영재기업인 홍보영상 또는 언론에 나오는 영재기업인들을 보면, 빌게이츠(William H. Gates),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 스티브 잡스(Steve Jobs) 등이 항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들과 같이 영재기업인이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들과 같은 세계적인 영재기업인이 될 수 있는지는 궁금하실 것입니다. 영재기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재기업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즉, 영재기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핵심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동료인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는 1998년 작은 창고에서 구글(Google)을 창업하였으며, 두 영재 기업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 지엠(GM), 포드, 크라이슬러를 합친 것보다 주식 가치가 더 큰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영재기업인**」이란 IT시대에 독창적인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을 말합니다. 우리 「**차세대영재기업인**」은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기업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말하는데, 이 학생들이 세르게이 브린 또는 빌 게이츠와 같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창의성, 도전정신, 리더십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역량들은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과 같이 세계적인 기업가의 자서전 및 인터뷰 기사내용의 중요사건분석과 안철수, 이민화, 민광기 등과 같이 국내 영재기업가와의 행동사건면접 등에서 도출되었습니다([그림] 참조).



[그림] 영재기업인의 개념 및 핵심역량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소식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개별상담 실시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이하 센터)는 향후 장기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고, 진로설계에 기반이 되는 자기에 대해 증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라, 경상지역의 교육생 116명, 학부모님 18명을 상담하였으며, 기초상담을 받은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상담을 받은 교육생들은 진로, 학업, 친구 및 가족 관계 등의 고민과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며, 좀 더 자주 상담하고 싶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학부모님의 경우 이해하기 어려웠던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자녀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센터는 학생과 학부모님의 고민을 좀 더 가까이, 편안하게 나누기 위해 '11년 2월 중에 온라인 상담실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p-gifted.org>입니다. 그리고 '11년 2월까지 1기생 기초상담을 마감할 예정이오니, 아직 상담을 받지 못한 1기 교육생은 2월 중에 상담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발된 2기 교육생에 대한 기초상담은 권역별로 실시될 예정이며 일정은 추후 메일로 공지해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기초상담에서는 기질 및 성격검사, 청소년진로발달검사에 대한 결과 해석을 비롯해서 스트레스 검사, 장점 검사 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당면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에서 제공해 드린 상담 서비스는 앞으로 추수상담, 온라인 상담, 학부모 상담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등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생 및 학부모님께 다가갈 것입니다.